

종교계에서 본 간호

연세대학교 교수 한 태 동

종교와 간호와의 관계를 설명하려는데 있어서 먼저 종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관계를 설정해야 될 것이다. 종교는 다른 사회상황 아래서는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우리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약 일세기 전, 우리 사회가 아주 비관적인 상태에 있을 때였다. 그때 우리는 사대주의적인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그와 같이 당시의 기독교의 신앙도 무엇에 의존한다는 사대주의로 변질되었다. 즉 하느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의존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적인 사대주의이다.

간호원들이 나이팅겔(Nightingale)의 희생봉사 정신이란 이야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 간호원 자신이 그 굴레에 썩어 해탈할 길을 찾기 어려운 지점에 봉착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기독교의 희생정신인 줄로 생각하지만, 기독교에서 이를 주장한 바 없다. 이런 경향은 다단 역사적으로 찾아 볼 때 로마사회로부터 생겨 난 것이다. 그때 정부에서는 민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력한들에게 무로로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이 gratia 즉 grace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부터 노력하지 않고 받는 정신이 기독교에 침투되어 그것을 은혜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남에게 안위, 은혜, 소망을 주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뜻은 아니다. 이런 외곡된 정신이 나이팅겔(Nightingale)의 치마목을 거쳐 간호계에 들어와 혼동을 빚어내게 되었다. 「뜰에 된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십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나, 하느님께서 다 먹여주신다」라는 성서의 한구절을 간호원이 하느님을 위해 봉사만 하면 먹을 것도 하느님께서 충분히 내려 주실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백합화를 보라」 혹은 「새를 보라」만 생각했고, 「뜰에 된」이나 「공중에 나는」이란 형용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백합이 피기 까지의 무진한 노력이나 새가 공중을 나는데 필요한 원동력을 두관실하게 여겼다. 이는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 마음속에 의타적인, 공것을 바라는 정신이 신학이나 신앙이란 용어로 표현되어, 자신을 자승자박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간호계는 이런 외곡된 정신에 제한을 받지 말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는 희생적인 봉사가 아니냐」는 선입관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교를 일종의 습성으로써 변모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리고 변모시킨 종교가 간호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안위를 준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다. 나이팅겔(Nightingale)은 귀족 출신이고 남에게 줄 것이 많아서 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서민이요, 서민으로써 남에게 줄 여지가 없다. 있는 물질을 남에게 주어 남을 안위시키는 것이 아니다. 있는 직장에서 남을 안위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간호원의 직책이다. 다시 말해서 안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사명이자,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 정신은 아니다. 이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질 한송이의 꽃을 남에게 주는 것보다 꽃에 물을 주고 꽃을 피우게하는 것이 그 꽃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과 같다. 간호원으로서 필요한 것은, 간호복을 입음과 동시에, 천사가 병원에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를 명사로 보지 말고 동사로 보아, 움직이며 몸소 행하는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